

특별취재

김제시, 주민세 자진신고 받아

김제시는 주민세(재산분, 구. 재산할 사업소세)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자진신고·납부를 받는다. 주민세(재산분)는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우리시 관내 연면적 330㎡를 초과 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대상으로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이 적용되며 건축물의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납세의무자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휴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과 실제로 가동 하고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등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주민세 감면혜택이 일몰 종료됨에 따라 유지원 및 어린이집, 농협 및 수협 등은 2015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신고납부방법은 김제시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와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방식인 위탁세(<http://www.wetax.go.kr>)에서 신고 가능하며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위탁세, ARS 간편 납부시스템(080-540-3377)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산파출소, 모악산마실길 점검

김제경찰서(서장 임상준), 금산파출소(소장 임진욱)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개인 또는 가족단위로 금산파출소 관내 모악산마실길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성 등 노약자들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모악산마실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방범활동에서는 모악산 마실길의 범죄취약 요소 등을 파악하여 CCTV와 가로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모악산관리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위급사항 발생시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112신고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모악산 마실길 주요지점에는 112신고위 치번호판을 설치하고 등산객들을 상대로 112신고위치번호판에 대한 신고요령을 홍보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15일 개장

김제시는 오는 15일 김제시 문화체육의 메카인 시민문화체육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분수대 옆에 신설된 어린이 물놀이장은 이날 개장식을 시작으로 여름철 방학기간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 등의 이유로 우선 시에는 휴무할 계획이다. 물놀이장은 유아(보육자 동반)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무료이다.

시설은 조합놀이대, 워터드럼, 워터바스켓, 워터터널 벽천등 물놀이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그늘막 등을 설치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금년 6월말 준공하였으며 시내에 위치해 김제시 어린이들은 물론 도내 어린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벼 재해보험 5995ha 가입

부안군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은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총 2936농가 5995ha로 전체 벼 재배면적 1만4825ha의 40%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기후변화로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재산손실을 최소화해 농가의 농업경영 안전을 도모코자 벼 재해보험 가입 촉진 대책회의를 갖고 벼 재배농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벼 재해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집중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기념식은 2년 주요 성과와 시민들의 축하메시지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떡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중단없는 정읍발전 총력”

김생기 정읍시장 민선 6기 2주년 기념식서 성과회고·비전제시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정읍시가 지난 1일 조촐한 기념식을 가졌다. 6급 이상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은 지난 2년 간 성과와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시정 발전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2년 주요 성과와 시민들의 축하메시지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떡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 시장은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정읍 발전을 위해 시민과 동료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하나가 달려왔던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회고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소임을 다해 준 공직자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김 시장은 KTX 개통과 (주)다원시스 유치,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서남권 추모공원 개원, 정읍 장학숙 건립, 내

장산리조트 골프장 민자 유치, 내장산해동관광호텔 신축 준비, 내장산 국민여가 캠프장 개장,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 지정 등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희망의 주춧돌을 놓았다면, 이제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더 큰 결실을 위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을 때”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1천400여 공직자와 함께 중단없는 정읍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대표로 참석한 감곡면 화강시설 주민협의체 이희실 위원장은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남권 추모공원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의를 다해 주신 김생기 시장님께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편 김시장은 이날 환경미화원과 수로원 등 현장근무자 20여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언제나 곁을 맴돌고 애를 다해 주시는 여러 분들이야말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의 참 일꾼이다”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 지난 4월 출범한 브랜드콜택시 현장체험에 나서 운수업 종사자의 애로사항과 시민들의 건의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시장은 “브랜드콜택시 출범으로 기존 택시와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택시업계 경영개선과 고객서비스 강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 및 노약자 등을 배려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택시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택시업계 애로와 고충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수질 개선

BOD 1.1 ppm의 1급수로 처리

정읍시가 지난해 한전 앞 정읍천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하 비점저감 시설)이 정읍천의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40억7천만원을 투입, 지난해 6월 한전 앞 정읍천 고수부지에 5천㎡ 규모의 비점저감 시설을 완공하고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이 시설은 상동 휴먼시아 아파트 주변에서부터 연지동에 이르는 307ha의 시가지에서 조곡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된 초기우수 5천 톤을 저류조에 담수한 후 다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재이송해 최종 정화처리를 거쳐 방류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시가 최근 간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비점저감 시설 운영 전에는 BOD 37.1ppm의 오염된 초기우수가 정읍천으로 방류됐으나 운영 이후 1.1 ppm 정도의 1급수로 처리돼 방류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읍천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시 관계자는 “지표면에 축적돼 있던 오염물질은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쓸려 하천을 오염(비점오염이라 함)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비점오염의 저감 및 적정처리가 수질개선의 시급한 과제였다.”며 “이의 일환으로 정읍천에 비점저감 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는 강우 시 비점저감 시설에 대한 정확한 효과를 분석해 정읍천 수질오염총량감시시설로 제시하기 위해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 모니터링 용역 중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초기우수의 유량과 오염도, 처리효율 등을 정확히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새만금유역에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흙탕물 저감을 위해 비점저감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의 연장에서 2017년 국비 포함 21억원을 투입해 덕천지역에 축산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농업 및 축산계 비점오염저감을 피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의회 하반기 의장에 오세웅

부의장엔 박천호 의원

부안군 의회는 지난 1일 제 27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 7대 부안군의회 하반기를 이끌어 갈 새로운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을 회의끝에 마무리했다.

7월 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최해 의장에 오세웅 의원, 부의장에 박천호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문찬기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장은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 홍춘기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

한편 부안군의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오세웅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군민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하며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크게 열어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군민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의회로 만



오세웅 의장 박천호 부의장

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와 관계에서 올바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며 부안발전과 군민의 안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 금구도서관 여름독서교실

김제시 금구도서관에서는 2016년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관내 초등학생 2~6학년 25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과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및 도서관이용의 생활화 유도를 위한 여름독서교실을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3일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4시간) 운영한다.

이번 2016년도 여름독서교실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나”를 주제로 다양한 독서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번 독서교실을 통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고 도서관을 보다 더 친숙한 장소로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도서관 이용 교육 ▲나만의 독서목록 만들기 ▲나의 꿈 목록 작성 ▲독서 공동 작품 만들기 ▲생각나누 표현하기 ▲미니북 만들기 ▲클레이로 표현하기 ▲나의 생각 글쓰기 ▲힘이되어주는 존재들 작성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미래비전 연구용역’ 시민설명회

정읍시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읍 미래비전 연구용역(안)’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김생기 시장과 우천규 시장, 시의원, 시민, 공무원, 전문가와 참여연구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미래 비전 발전계획안을 설명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읍시 중장기 미래 비전과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는 미래 비전과 선도 프로젝트 발굴 설명,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용역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진은 정읍 지역여건과 현황 분석을 토대로 설정한 중장기 비전과 가치 창출 그리고 미래 신 성장 추진동력으로 삼기 위한 5대 발전축과 51개 전략사업 등을 담은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현대경제연구원의 우

진형 책임연구위원은 기준연도를 2015년, 목표연도를 2030년까지 설정하고 정읍시 전체 권역을 분야별 발전축으로 나눠 특화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의 계획안을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비전으로 ‘자연이 품은 첨단도시, 시민이 미소 짓는 활력 정읍’을 제시하고, 5대 발전전략으로는 ▲미래 동력 ▲농업 성장 ▲문화관광벨트 ▲도시개발 ▲행복기반 조성을 밝혔다.

연구진의 전략과제 발표에 이어서 정읍시 미래비전에 대해 참석자들의 열띤 의견 제시와 토의도 이어졌다.

건의된 의견으로는 ▲정읍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핵심전략을 찾아 전력투구하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고부관아 터, 고사부리성, 눌재 등 고부권 문화역사 복원 사업을 반영할 것 ▲전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내장산 가을 한철 이외에 다른 계절테마를 찾아 특색 있고 차별성 있게 특화시켜 나가자 등 다양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의 단품미인 씨 없는 수박이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정읍 씨없는 수박 일본서 인기

올해 40톤 수출... 전년 대비 235% 늘어나

정읍의 단품미인 씨 없는 수박이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정읍지역에서 생산된 씨 없는 수박의 일본 수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 6월까지 수출한 씨 없는 수박은 총 40여톤으로, 이는 전년 대비 235%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그간 시에서 SWT(Seedless Watermelon Technology)꽃가루, 전열선, 수박종묘 등을 지원하며 수박 수출단지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데다 수박재배 농업인과 수출업체, 유통업체 등이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 결실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특히 씨 없는 수박이 신선권이 식품으로 가공해도 씨가 없어 과육이 쉽게 물러지지 않아 일반 수박보다 오랜 시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조각 수박을 선호하는 일본인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일본 수출 수박은 정읍시산 지류통센터에서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친 무게 6~8kg, 당도 11브릭스 이상의 최고 상품들이다.

한편 시는 이달에도 일본 후쿠오카와 동경에서 수출관측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7월부터 12월까지 90톤 가량을 추가 수출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슴도치 주말장터는 11개 상점으로 오는 9월 3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운영된다.

부안위도면 고슴도치 주말장터 개장

‘힐링의 섬, 고슴도치 아일랜드’ 부안 위도면에서 고슴도치 주말장터를 개장한다.

위도면은 그동안 불거리, 살거리, 먹거리 등이 부족하다는 관광객들의 여론에 따라 주말장터 운영회를 구성해 위도 여객터미널 옆에 고슴도치 주말장터를 2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고슴도치 주말장터는 11개 상점으로

오는 9월 3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운영되며 주민이 직접 생산한 농·수·임산물과 공예품, 먹거리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최춘남 주말장터 운영회 회장은 “이번 주말장터 개장을 통해 위도를 찾는 관광객이 불거리·먹거리 등 위도의 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